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은 송창근 회장,
“재외동포청 출범 때 친수 훈장받아 큰 영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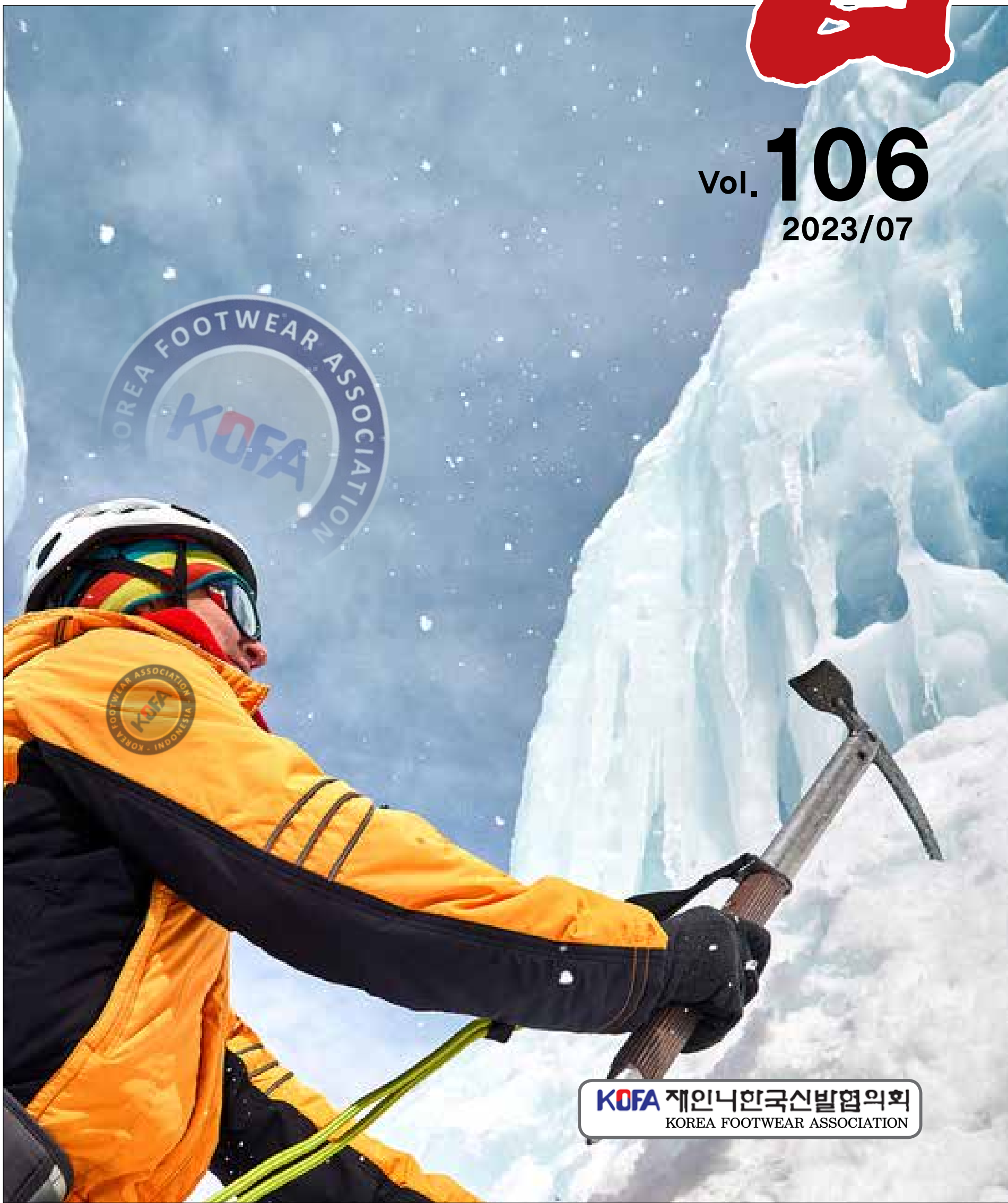
MONTHLY **KOFA**

코파의

칭호

Tel. 021-3002 9090,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Panunggan Barat, Kec. Cibodas, Karawaci Tangerang 15139

Vol. **106**
2023/07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은 송창근 회장, “재외동포청 출범 때 친수 훈장받아 큰 영예”

“동포 상공인들이 도와준 덕분” ... “한-인니 경제협력에 힘 보탬 것”

송창근 전 인도네시아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이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친수받은 영예를 안았다.

송창근 회장은 이날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임명장 수여식 직후 열린 재외동포 유공자 표창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친수받았다.

이날 대통령이 친수한 유공자는 모두 4명. 인도네시아에서 ‘미스터 신발 왕’으로 불리며 한국 진출기업들을 지원해 온 송창근 재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고,

이어 미국 워싱턴주 최초의 한인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며 한민권의 보호에 기여해 온 시애틀의 이옥화 전 아세안태평양양자문위원회 커미셔너가 국민훈장 동백장, 인도에서 우리 진출기업 지원 봉사단을 조직하고 한글학교 설립에 기여한 구상수 재인도한인회 고문이 국민훈장 석류장, 필리핀에서 손해보험 전문인으로 사고를 당한 한인들을 지원하며 국가 이미지를 높인 김희경 필리핀 한국어성 연합회 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민훈장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한테 수여하는 훈장이다. 훈격은 5가지로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순이다. 아래로 국민포장이 있다.

“두 달 전에 대사관으로부터 훈장이 수여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송창근 회장이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땅그랑에 있는 KMK 그룹 직원들(사진=재외동포재단이 발간한 책 '한상 세계를 품다')

대통령 친수식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침 어머니 기일 직후여서 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영예를 얻었습니다.”

송창근 회장은 이렇게 친수 영예를 안게 된 경위를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코참 회장을 지내면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거나 진출하려는 한인 상공인들을 도운 것을 너무 크게 평가해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승

은호 코린도그룹 회장님처럼 대단한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큰 훈장을 받아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현지 한인동포사회와 한국 중소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도우면서, 한인 기업인의 이미지를 높이라는 당부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또 “올해는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송창근(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제협력도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관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수교 50주년 행사는 고위급 교류, 한-인니 1.5 트랙 관계 발전 포럼, 매경 인도네시아 포럼, 코리아헤럴드 수교 50주년 기념 경제문화 포럼, 수교 기념일 리셉션 등 연중행사로 이어진다. 7월의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 9월의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도 열린다.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준비된다. 한-인니 미담 사례 발굴, 코리아 트래블 워크, 아리랑 TV K-POP 콘투어, 한-인니 국제 세미나, K-POP 콘서트, 영화제, ‘한인 100년사’ 인이어본 출간, 한-인니 우정의 레이스, 태권도 시범단 공연, K-Food 홍보대전 등도 진행되거나 열릴 예정이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도 활발한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경제협력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경제협력에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기업인들의 공공외교 경제외교도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송창근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신발제조업을 시작했다. 나이키, 컨버스, 헌터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든다. 송 회장은 1985년 울산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단돈 300달러로 인도네시아에서 신발제조업을 시작했다. 나이키, 컨버스, 헌터 부츠 등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하며 6개 계열사 3만여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각 계열사 내에는 병원과 이·미용실, 직업전문학교인 ‘나이키스쿨’, 장학재단 등을 운영해 현지 업계 이직률 최하위와 함께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손꼽힌다.

송 회장은 인도네시아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때인 2015년 10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맡았고, 이어 민주평통 제17기 아세안 부의장으로도 봉사했다.

송창근회장은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량이 있는 외국인 경제단체로 성장시키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인간 중심경영으로 직원을 가장 우선시하여 한인 기업인에 대한 이미지 고취 및 국위선양에 기여했다 또한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앞장서며, 각종 특강을 통해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등 차세대 양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여러 한인 단체에서 활동하며 지원을 계속했고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돕는 데 솔선수범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 및 지역에 대한 끊임 없는 봉사 활동으로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도 활발한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경제협력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경제협력에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기업인들의 공공외교 경제외교도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송창근 회장은 인도네시아

에서 ‘미스터 신발왕’으로 불린다. 그가 경영하는 KMK 글로벌스포츠팀은 인도네시아에서 나이키, 컨버스, 헌터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든다. 송 회장은 1985년 울산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단돈 300달러로 인도네시아에서 신발제조업을 시작했다. 나이키, 컨버스, 헌터 부츠 등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하며 6개 계열사 3만여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각 계열사 내에는 병원과 이·미용실, 직업전문학교인 ‘나이키스쿨’, 장학재단 등을 운영해 현지 업계 이직률 최하위와 함께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손꼽힌다.

송 회장은 인도네시아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때인 2015년 10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맡았고, 이어 민주평통 제17기 아세안 부의장으로도 봉사했다.

송창근회장은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량이 있는 외국인 경제단체로 성장시키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인간 중심경영으로 직원을 가장 우선시하여 한인 기업인에 대한 이미지 고취 및 국위선양에 기여했다 또한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앞장서며, 각종 특강을 통해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등 차세대 양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여러 한인 단체에서 활동하며 지원을 계속했고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돕는 데 솔선수범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 및 지역에 대한 끊임 없는 봉사 활동으로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도 활발한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경제협력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경제협력에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기업인들의 공공외교 경제외교도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송창근 회장은 인도네시아

월드코리아신문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 .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www.hanjinpower.com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PT.PERATAMA에서 후원하는 SMK NEGERI 1교사 재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인도네시아 참가자 선발대회에 선정되어



한국 교육부 주관 2023 제 21회 재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인도네시아 참가자 선발대회에서 인도네시아 땅그랑에 소재하는 실업계고등학교 SMK NEGERI 1 ARIF교장과 교사 SITI가 수많은 지원자들중 선발되어 오는 7월 10부터 14일까지 4일간 “한류, 해외 한국어교육을 이끌다”의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실업계고등학교 SMK NEGERI 1는 한글보급을 목적으로 15년간 활동해온 인우회(회장:신동수)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도네시아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최초로 채택한 학교이고 교사 SITI 역시 본교출신으로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교사 SITI는 지난달 롯데에비뉴에서 열린 외교



부 주최 2023 Quiz on Korea in Indonesia에 합격하여 오는 9월 열리는 2023 Quiz on Korea에 출전하게 되는 영광을 안았다. SMK NEGERI 1의 한국어 열풍과 안정적인 한국어 교육은 인도네시아 사모임인 인우회의 15년간 헌신적인 노고가 그 밑바탕이 되어 최근 인도네시아 한국신발기업인 PT.PERATAMA 서영철회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글교육을 원하는 학생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한글교재, 교사등 턱없이 부족했던 SMK NEGERI 1의 교육환경을 PT.PERATAMA 서영철회장은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 한다면서 학교의 어려운 재정난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문화의 꽃은 언어라고 했다. K-POP, K-FOOD, K-DRAMA등 수많은 한류 콘텐츠가 활약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한글이라는 언어가 한국의 힘이 될 것이다.

[KOFAP편집부]

인니 무비자 입국은 ASEAN만... 도착비자는 한국 포함 92개국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는 현재 아세안(ASEAN) 9개 회원국에만 무비자 방문(BVK)을 허용하고 있다. 19일 폼빠스닷컴에 따르면, 도착비자 발급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92개국이며 정부는 올해 6개의 도착비자 대상 국가를 추가할 예정이다. 법무인권부의 실미 까림(Silmy Karim) 이민국장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무비자 방문 허가가 실제로 공공 질서를 방해하고 질병 확산의 기회를 열 수 있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할 때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중에 무비자 정책이 부활되더라도 무사증 방문 규정은 호혜적 측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혜택 제공, 안보적 측면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 대통령령 제21호 6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 및 공중 보건을 고려하여 무사증 방문 승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전에 무비자 국가 대상을 169개국으로 지정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무비자 정책은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확산 및 국가경제 회복 기간 동안의 출입국 비자 및 체류 허가 발급에 관한 2021년 법무부 장관 규정 제34호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인 2021년에 일부 국가의 외국인은 도착비자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발리 응우라 라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WNA)은 하루에 16,268명,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통해 5,945명이었다. 올해 발리 응우라 라이 국제공항에 하루 입국한 외국인은 12,917명,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5,057명이다. 실미는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자수가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무비자 방문 정책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투자자 및 전문인력, 고소득 퇴직자 등 특별 자격 조건에 맞는 외국인(WNA)을 대상으로 투자 규모에 따라 5년 또는 10년 거주 허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골든비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수출 시장의 지속적 부진으로 섬유업계 근로자 해고 증가 예상



▲서부 자바 반동의 De' Cantiq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옷을 만들고 있다.2017.10(사진=안따라포토/ M Agung Rajasa)

수출 시장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말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에서 더 많은 근로자가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의 다낭 기린드라와르다나 전무이사는 21일, 올해 3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절감 조치로 인해 5개 섬유 회사의 근로자 약 12,000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정리해고, 계약 해지 또는 근무 시간 단축 등의 세 가지 형태가 될 것이며, 근무시간 단축의 경우는 근로자의 월급이 더 낮아지게 된다. 다낭은 섬유 산업의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줄이고, 정책이나 법률 개선을 위해 로비하고, 불법 수입 방지 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더 큰 해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4%에서 올해 2.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주로 미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

로 한 선진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그룹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 2.7%에서 올해 1.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API 의장인 제미 까르띠와 사스트라아트마자(Jemmy Kartiwa Sastraatmaja)는 21일 의원들에게 인도네시아 섬유 수출이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미는 수출국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많은 수출국들이 미국과 유럽과 같은 대부분의 서구 시장을 강타한 경기 침체로 인해 대체 시장으로 인도네시아를 목표로 삼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업스트림 부문의 많은 섬유 회사들은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몇몇 회사는 가동을 중단해야 했다. 그는 “섬유 산업은 규제 보호가 필요하며, 중국, 방글라데시, 터키, 인도와 같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노동자를 고용해 섬유 산업을 고도로 통제하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말

했다. 제미는 또한 인도네시아 의회와 정부에 인도네시아의 섬유 부문과 섬유 제품을 보호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 신파 위자자 깎다니 회장은 15일 기자들에게 해고의 물결이 언제 끝날지 알기 어렵다며 세계 경제가 여전히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3월, 정부는 기업들에게 임금을 25%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을 허용했지만, 이는 섬유, 신발, 가죽 제품, 가구 또는 아동용 장난감 산업에 종사하고 해외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에게만 적용되었다. 이 삭감은 노동부가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정도(定都) 496년 맞은 자카르타의 유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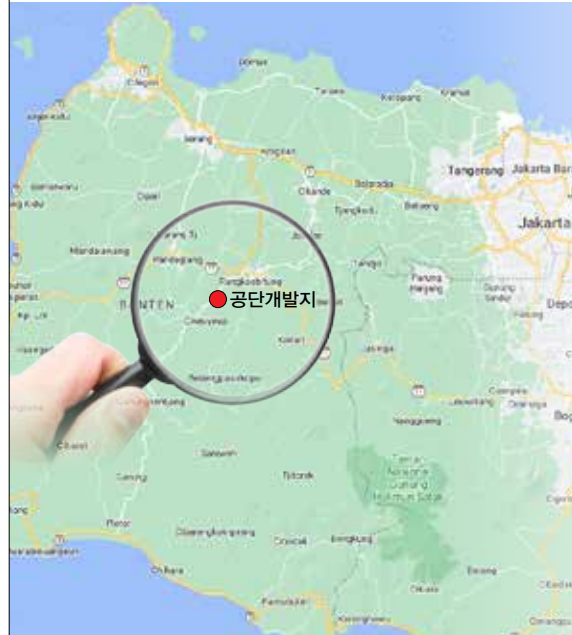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올해 정도(定都) 496년 맞는다. 매년 자카르타 정도 기념일인 6월 22일 전후로 자카르타에서는 자카르타 페어(Jakarta Fair) 등 대규모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면적은 약 664 km²이며, 약 1,055만명이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다. 자카르타 대도시권(Metropolitan)인 자보데타벡(Jabodetabek) 기준으로 인구는 2,800만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전 세계에서 도쿄-요코하마에 이어 두번째로 큰 도시이다. 자보데타벡은 자카르타, 보고르, 데벡, 땅그랑 등 수도권의 위성도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이다. 역사학자가 주장하는 자카르타 역사는 다음과 같다. 자바섬 북서 지역의 찰리웅강 하류에 위치한 오늘날 자카르타는 14세기경 서부 자바주 보고르 지역에 있었던 빠자자란(Pajajaran) 왕국의 항구도시로 당시 순다클라빠(Sunda Kelapa)라 불렸다.

16세 초에 순다클라빠를 포르투갈이 점령했다. 이후 순다클라빠 인근의 왕국의 지도자 파파힐라(Fatahillah)가 1527년 6월 22일 이 지역을 탈환하고, 자야카르따(Jayakarta)라고 개명했다. 자야카르따는 ‘승리와 번영’의 도시라는 의미이다. 이어 16세기 말에 자야카르따를 점령한 네덜란드는 1619년 3월 12일 바따비아(Batavia)로 개칭했다. 이후 바따비아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관장하는 광대한 인도네시아 군도의 무역 본부로 성장하게 된다. 바따비아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배를 받는 300여년 동안 바따비아로 불리다가 1942년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면서 ‘자야카르따’를 줄인 ‘자카르타’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1956년 인도네시아 국회는 파파힐라가 자카르타를 탈환한 1527년 6월 22일을 기념해 자카르타 정도(定都)로 확정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muns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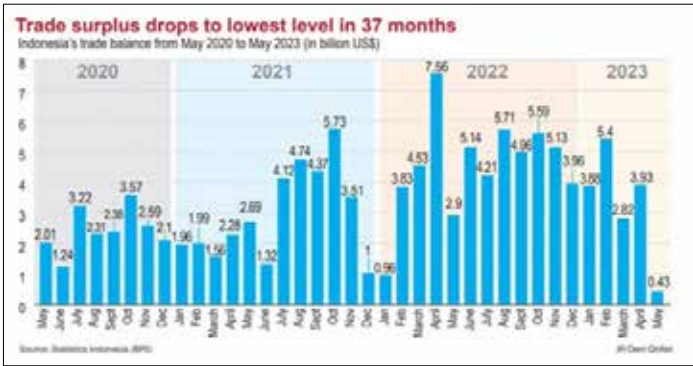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지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3년 기준 Rp 2,944,665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²
 -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 7.2 공단지 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출발지	거리	소요시간
Gerbang Tol Tangerang	85 Km	1H 10M
Air Port (CGK)	103 Km	1H 30M
SCBD Jakarta	108 Km	1H 40M
Tanjung Priok Port	121 Km	2H 30M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munscb.com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munscb.com, munscb33@gmail.com
www.muns.id

인니 무역 흑자,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



▲무역흑자 3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Statistics Indonesia (BPS) /자카르타포스트/Deni Ghifari)

인도네시아는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 또한 급격히 증가해 5월에 무역 수지가 급감했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달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된 상품 가치가 수입된 상품 가치보다 4억 4천만 달러에 불과해 5월 흑자는 3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5월부터 흑자 행진을 이어왔지만, 지난달 수입이 전월 153억 5천만 달러에서 212억 8천만 달러로 급증하면서 흑자 행진은 거의 끝이 났다. 수입 증가율이 38.65%인데 비해 수출은 4월 192억 9천만 달러에서 지난달 217억 2천만 달러로 12.61% 증가하는데 그쳐 수출 증가율이 수

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글로벌 수요 약화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다시 무역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영 만다리 은행의 경제학자 파이살 라흐만은 “무역 흑자 폭이 더 좁아질 수 있으며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적자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입 증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내수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인도네시아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연간 금리를 4%로 낮춰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 초에 보고된 바와 같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망과 일반적으로 가계 지출 증가의 전조인 일자리 가용성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은행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개월 연속 동결하고 7일물 역레포 금리를 5.75%로 유지했으며, 이는 작년 8월부터 누적 225bp 인상한 후 지난 1월 수준이다. 글로벌 경제 자문 회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내년이나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보다 이른 2023년 4분기에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코토 츠치야는 15일, 여전히 경기 침체와 높은 공공 부채가 존재하며, 통화 안정과 낮은 인플레이션이 조기 금리 인하를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 물량 끌어올린 고속철도 특히 인도네시아의 중국과의 비석유 및 가스 무역은 11억 달러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주로 기계 및 전기 장비 수입에 기인한 것이다.

다나몬 은행의 경제학자 이르만 파이즈는 인도네시아의 수입 급증은 건설 막바지 단계에 있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가져온 “일회성 증가”라며 앞으로 수입은 5월에 비해 완만한 속도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8월에 개통 예정인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속철도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합작하여

철도를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교통 현대화의 쇼케이스로 여겨지며 80년의 양허 기간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현지 직원 교육이 지연됨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적어도 운영 첫해에는 중국 기관사와 엔지니어에게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올해 1분기 양국 간 교역액은 309억 9천만 달러로 2위인 96억 7천만 달러의 일본을 훨씬 능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쇄/출판 광개토
Kwanggaeto

인쇄

카다록 / 브로슈어 / 리플렛 / 신문 / 메뉴판
BOOK / 사용설명서 / 사보 / 회보 / 지명원
보고서 / 회사소개서 / 교재 / 각종 양식의
카렌다 / 명함 / 봉투 / 바인더 / 쿠폰 / 초대장
인박스 / 제품 패키지 /
스티커 / 라벨 / 행택 / 컴퓨터 커팅

021 3002 9087 021 3002 9091 / 9090
0858 9060 0962

(주)정석 테크 아바디
PT. JEONGSUK TECH ABADI
Contractor, Engineering, Electrical & Supplier

전기공사

30

년의 시간을
한인기업과 함께 해 왔습니다!

Jl. Lingkar CBD Palem Semi Ruko Kav. No.33-35, Kel. Panunggangan Barat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Zip Code 15139
Tel. 021 39720121 Email. baeksy68@hanmail.net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함에 따라 기업들 사업 확장에 주목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팬데믹으로부터의 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대부분의 제한이 몇 달 전에 완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아르자드 라지드 회장은 22일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이 많은 기업의 추가 확장을 장려하여 경제 전반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자드 회장은 관광, 숙박, 식음료 산업이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이제 국내외 관광객들이 인도네시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르자드 회장은 코로나19의 새로운 팬데믹 선언은 비즈니스 부문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최적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마이크로, 중소기업(MSME)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임 회장인 신따 위자자 캄다니는 22일에 이 결정이 이동성을 촉진하고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투자자들이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금융 부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팬데믹 관련 규제를 많이 완화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억제와 경제 운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으며, 종종 예고 없이 단기간에 중대한 정책 변경을 단행하여 기업과 일반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연구원 나일룰 후다(Nailul Huda)는 22일 포스트에 팬데믹 기간 동안 공공 정책은 부실했고 인도네시아는 치명적인 델타 파동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그는 소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중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점점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최근 발표가 바이러스가 박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정부가 장기적으로 코로나19를 제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Apindo의 신따는 인도네시아가 보건 프로토콜을 유지하고 백신 접종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몇 달 전에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에 최근 정부 발표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시경제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팬데믹 비상사태가 해제되기 전에도 2023년 투자가 목표

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분석가들은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의 재정 또는 통화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INDEF의 나일룰은 정부가 팬데믹 시대의 기업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인센티브가 세수 손실로 이어져 국가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정부가 더 이상 경기 부양책에 필요한 재화 횡재를 누리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BC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수무알은 22일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제 회복 부양 자금을 늘리는 대신 정부 자금이 의도한 대로 충분히 사용되도록 해야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의 1조 6천억 루피아 목표에 대비해 올해 1조 4천억 루피아의 투자 목표를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세계 해수 온도 급상승...기후재앙 ‘티핑포인트’ 도달했나

“자연적·인위적 요인 결합...엘니뇨 현상이 가장 결정적”
지구 온난화가 급상승 조건 만들어...대기오염 감소도 영향

세계 해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인류가 기후 위기를 ‘티핑 포인트’ (급격한 변화점)까지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나드는 광활한 영역에서 이달 들어 해수면 온도가 기록적 수준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관측됐다.

더힐은 이를 자연적·인위적 요인이 결합한 ‘불행한 우연’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조건이 갖춰지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올해 해수면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 현상이 본격화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라니냐(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현상)가 이어지면서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부근 해역에 두터운 운수층이 형성됐는데, 올해는 반대로 동태평양을 중심으로 해표면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태평양을 넘어 대서양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엘니뇨와 관련한 해양과 대기의 열 교환이 기류 및 기압을 변화시키면서 대서양 일부 지역에서 해수 온도가 이상 변동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고위도 지역과 북대서양에서는 화창한 지역은 더욱 더워지고,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은 더욱 서늘해지

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에서는 기록적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고, 유럽 인근 해상은 ‘열돔’이 형성됐다고 더힐은 전했다.

열대 대서양에서는 기류와 기압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9월 허리케인 시즌 수준까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대서양 이상기류와 엘니뇨로 무역풍과 아열대 고기압이 약화했고, 저온 해수가 상승하지 못하면서 수면 온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아프리카 사하라 먼지 생성도 줄어드는데, 이러한 현상이 수온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힐은 다만 해수 온도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결국 지구 온난화라고 강조했다.

해수 온도는 1900년대 이후 화씨 2도 안팎으로 상승했는데, 1982년 6월 해수 온도와 올해 같은 시기를 비교해 봐도 그 차이가 확연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작년 1월 태평양 일대에 광범위한 쓰나미를 일으켰던 통가 해저화산 분화 당시 대량의 수증기가 분출된 것도 해수면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힐은 “올해 엘니뇨는 태평양에서 지속 확산해 기후 체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지구 온난화에 더해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극단 기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PT ALLJI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저압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t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LJIUM GREEN NUSA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짜사랑을 하는 이유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다. 별로 할 말이 없기도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대화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 싫어서다. 오늘따라 점심으로 추어탕이 먹고 싶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가는 그 식당엔 빈자리가 없었다. 4인 식탁에 3인이 먹는데 그 한 자리에 앉자고 할 수가 없어서 옆의 시래기 조림 집으로 갔는데 거기도 자리가 없다. 조림은 1인분을 잘 안 파니 남기더라도 2인분을 시켜먹을 생각이었다. 다시 옆 골목으로 걷는데 문이 열린 식당에 손님이 아무도 없다. 안 하는가 하고 들어가 보니 하기는 한다. 갈치구이를 시켰다. 미리 나온 가지나물과 미역에 가볍게 식초를 두른 반찬은 입맛을 돋게 하였다. 이리 맛있는 식당에 왜 손님이 없는 거지? 손님이 줄을 서는 식당과 조용한 이 식당의 차이는 무엇일까? 적어도 음식의 질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갈치를 굽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눈요기를 하는데 어떤 수수한 아저씨의 이야기에 눈이 꽂힌다. 그분은 수첩을 들고 다니

며 사사건건 메모를 하고 있다. 어떤 때는 성경 구절을 적기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기도를 하는 것과 같다. 그는 적으며 기도를 한다는데 나는 적으며 공부를 한 적은 있었다. 특히나 단어공부는 적으며 중얼거려야 기억이 잘 되곤 했다. 시험 때면 중요한 내용의 소재목(목차)을 정하고 그것들을 첫 글자만 따서 외고는 풀어쓰곤 했다. 마치 ‘태정태세문단세’ 하듯이... 지금은 적는 대신에 듣는 것을 택한다. 악보가 있으면 계명을 외워버린다.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반복 듣기를 한다. 여러 번 들으면서 따라해 보는 것이다. 적어도 100번을 귀담아 들으면 될 수 있는 것 같다. 나중엔 따라 흥얼거리면 틀림없이 외워진다. 잠들기 전에도 별을 세는 대신에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계명을 외면 악기로 연주하기도 쉽다. 그러면 악보가 없어서 연주를 못하는 일은 없다. 어쩌다 노래를 하려면 한두 줄 말고는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하여 못 부르겠다. 그런데 어릴

적에 배운 노래는 지금도 잘 부른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때는 전적으로 노래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은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아마, 집중하지 못하니 그럴 것이다. 노래방에 가도 악보와 가사가 다 제공되니 굳이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외우는 전화번호가 몇 안 되는 것이다. 010을 빼면 많아야 8자리인데... 나는 메모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한다. 카톡에다 가볍게 문자를 남기기도 한다. 실마리만 있으면 되니까 말이다. 할 일이나 어떤 청길 것은 메모해 두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다. 그래서 메모는 필요하고 사진이건 녹음이건 방법이야 별로 관계없지 않은가?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다. 연필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하고 연필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적느니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편리하다. 녹음을 문자로 바꾸어 주는 앱도 있고 적은 것을 읽어 주기도 한다. 세상 참 좋아졌다. ‘적(는)자생존’ 이 아니라 ‘찍(는)자생존’ 이다.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때에 증거가 있다면 참 좋겠다. 후회는 먼저 생기지 않지만 통화를 하면

서 녹음을 해 둘 걸 하고 후회하는 때가 있다. 아니면 녹화가 있다면 좋겠다 싶은 경우도 있고, 특히 교통사고에는 블랙박스가 말한다. 지난 3월말, 한 지역센터를 방문했는데 봄날이 풀려 벚꽃이 피기는 했지만 이따금 찬바람은 불었다. 사무실을 찾으니 깔끔하고 온화하다는 생각이 들어 첫 인사겸 덕담으로 여기는 “온기가 됩니까.” 라고 했는데 나중에 같이 간 사람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였다. “음기가 됩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언제나 녹음기를 켜고 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조사를 받고 해명이 될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사필귀정이라지만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였다. 사람이 어쩌면 온기가 음기로 들릴까? 그리고도 인생이 즐거울까? 주말이면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외손녀를 본다. 힘이 들면서도 좋다. 아가는 말을 못하니 행동과 표정으로 소통한다. 모든 것이 입으로 가고 웃거나 울거나로 표현한다. 울리지 않고 즐겁게 해 주는 것이 아기를 잘 돌보는 일이다. 우선은 배고프지 않게 먹여야 하고 춥거나 덥지 않게 하고 기저귀를



조기조

잘 갈아주고 포근히 잘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아가도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기에 눈을 마주치고 사랑을 표해야 한다. 그러면 보상이 있다. 해맑게 웃어 준다. 증거로 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아가를 보면서 사진을 찍어 둔다. ‘할배’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키워주었다는... 이것도 할배가 혼자서 즐기는 짜사랑 아니겠는가?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 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문의 박 찬 Hp : 0812 9512 8990
현지인 Hp : 0857 7752 7542
Hp : 0812 9012 2019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0 No. 90,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pusat_BGT@yahoo.com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 미래 50년 협력 방향 모색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교관계 수립 50년주년을 기념해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성과를 되짚고, 미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그리고 한국동남아학회는 “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 을 주제로 오는 6월 26일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 을 개최한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맺고 있

는 국가로, 지난 50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박진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하산 위라유다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 등 정부, 학계,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등에 기반 한

한-인도네시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아 래-

- 일 시 : 2023. 06. 26. (월) 12:30~19:10
- 장 소 :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 주 최 : 외교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 주 관 : 한국동남아학회



신발 한 켤레가 무려 200억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신발은 얼마일까? ‘레드 프라이데이’ (Red Friday)에서 제공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신발 TOP10’ 에 따르면 1위는 자다 두바이에서 만든 제품(작품이라 해야 할 듯)으로 1천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원에 달한다.

발등에는 15캐럿 D등급 다이아몬드가 한쌍 박혀 있으며, 트림(신발 신는 테두리)을 장식하는 데만 238개의 다이아몬드가 사용됐다.

신발크기는 240mm(36사이즈)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고객이 원할 경우 수선비 전액부담을 조건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2위 1천510만 달러(약 176억원)로 생일선물로 특별제작된 신발이다.

디자이너 데비 왕햄의 작품으로 블루, 핑크 다이아몬드로 세팅했으며, 바디는 백금으로 제작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24K 금 도금으로 만들었다.

공동 3위는 해리 윈스턴의 아들 론 윈스턴이 ‘오즈의 마법사’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도로시의 신발로 300만 달러(약 35억원) 가격이 책정됐다.

이 제품은 도로시의 신발에 1천 350캐럿의 루비와 50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만들었다.

또다른 3위는 스투어드 와이츠먼의 신발로 역시나 가격이 300만 달러에 달했다.

시애나 새틴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루비로 만든 장식품이 새틴 러플 속에 들어있다. [매일신문]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 석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株式会社 三湖보일러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iler.com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Fax : 021.5984.666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틈스 목금형 (틈스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 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 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 아스테이지, PC, 필름 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금형, 특수 칼금형

미즈노에서 첫 주방용 슈즈 SOFPON(소프폰)



미즈노는 음식점 주방 작업용 워크 슈즈 'SOFPON(소프폰)'을 미즈노 워크 제품을 취급하는 전국 작업용품 전문점과 홈 센터, 미즈노 공식 온라인 등에서 4월 20일부터 발매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이 발표한 202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음식점 취업자수는 약 214만 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방 작업은 장시간 서서 하는 일로 다리와 발에 부담이 크며 바닥에 떨어진 기름과 물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워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번에 미즈노가 발매한 SOFPON은 스포츠 슈즈 개발의 노하우를 활용했으며 아웃솔은 기름과 물에 대해 잘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채용하여 내활성을 추구하는 등 주방에서의 사고 위험을 줄였습니다. 또 발끝에서 발꿈치 방향과 대각선 방향에 걸쳐 물과 기름이 흘러서 빠져나가기 쉬운 홈을 배치해 물과 기름이 고여서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발꿈치 부분의 쿠션성을 높이는 '셀 구조'를 탑재해 여러 개의 독립된 돌기 모양 설계로 각 셀 사이에 틈을 만들어 하중이 부여되었을 때 각 셀이 휘어짐으로써 쿠션성을 높였다. 바깥 부분에 연속적으로 디자인을 배치해 서 있을 때나 보행할 때의 안정성도 추구했다. 아웃솔 소재에는 기름으로 인한 열화가 발생하기 어려운 내유성 러버 소재를 채용해 제품이 줄어드는 것을 경감하고 있다.

어퍼에는 부드러운 인조 피혁을 채용해 발이 들어가는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 발에 닿는 느낌을 부드럽게 해 착용감을 좋게 했다. 이 회사가 음식점 주방 작업용 신발을 판매하는 것은 처음으로 'SOFPON'의 발매로부터 1년동안 판매 목표는 4000켤레다.

사이즈는 225~280, 290mm(3E 와이드)로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2가지다. 가격은 오픈 가격. 중량은 사이즈 260mm 한쪽 약 275g.

출처: Shoes Post

해외 시장 정상화로 아식스 1Q 순매출 45% 성장



일본의 스포츠웨어 회사, 아식스가 아시아 지역의 반등세에 힘입어 2023년 1분기 순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아식스의 순매출액은 10억2,000만 유로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며 이는 2022년 1분기에 비해 44.6% 성장세를 보였다. 아식스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 19 관련 제재가 전면 해제되면서 아시아 대륙에서의 "사회적 및 경제적 활동 정상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동안 일본에서의 아식스의 순매출은 61.9% 성장해 총 1억5,490만 유로를 기록했고 중국에서도 41.2% 증가해 총 1

억2,810만 유로를 달성했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1분기 매출이 91.1% 급성장하며 4,630만 유로를 기록했다. 이 덕분에 이 지역은 아식스의 미래 성장 동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의 실적도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 지역에서의 1분기 순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9% 성장해 2억9,780만 유로를 달성했다. 북미의 경우도 23.9% 증가해 1억7,5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아식스는 "이 지역의 소매업 채널에서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식스의 2023년 1분기 수익은 총 1억93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86.9% 성장했다.

2023년 전망

아식스는 2023년 순매출은 전년 대비 5.2% 성장해 34억2,000만 유로, 순수익은 1억3,410만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Worldfootwear

KOFA의 힘 광고를 제안합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징

- 1)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일 발송되며 관련 회원사 약 200여 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821 1122 8827(mr. kang)

<p>NEXTIN LED LIGHTING ELECTRIC MATERI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nufacturing Assy Cikarang Trading / Import Korea & China Small Qty Can Be Accepted 	<p>Jakarta Office Plaza Kenari Mas Lt.4 Jl Kramat Raya No.101, RW. 01 Paseban, Senen, Jakarta Pusat Telp : +6221-3104414</p> <p>Cikarang Warehouse Jl Industri Utara 4 Blok SS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Cikarang Utara Contact Person 0815-1902-4272</p>	<p>DHT PT. DAEHWA T&D INTERNATIONAL MRO GLODOK SAFETY/PACKING/SPARE PARTS/ TOOLS/SAFETY/EQUIP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livery Onsite From Glodok Alternative / optional brand or technical conditions
<p>LED Highbay 100W/150W</p> <p>Price 150W Rp 1.400.000 Waterproof Class IP 65 Power factor : 0,95 CCT : 6500k</p>		<p>PACKING ITEMS : Silicagel, Wrapping, PE Bag, Opp Tape, Strapping Band</p>
<p>LED Tube T8 18W / 24W</p> <p>Price 18W Rp 60.000 Lumen : 2100 Lm CCT : 6500K Input Power : 1 Sisi / 2 Sisi</p>		<p>STEEL ITEMS : Alumunium profile, Belt, Reparation Parts</p>
<p>LED STREETLIGHT - FLOODLIGHT - DOWNLIGHT - FLATLIGHT</p>		<p>TOLLS & CONCUMABLE ITEMS : Hand Tools, WD 40</p>
<p>ELECTRIC ITEMS</p>		<p>SAFETY/HSE ITEMS</p>
		<p>FACTORY EQUIPMENT AND SPARE PARTS</p>

아식스 스포츠 스타일 카테고리에서 폐기 예정인 루이보스, 감, 말차, 양상추에서 색을 추출해서 염색한 ‘GEL-LYTE III OG’ 와 ‘GEL-LYTE V



▲말차와 레터스에서 추출한 색으로 염색한 천을 사용한 GEL-LYTE V

아식스는 아식스의 스포츠 스타일 카테고리에서 섬유제품의 도매 및 수출입을 다루는 도요시마(豊島, 아이치현 나고

야시)가 전개하는 폐기 예정 식재료를 염료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 브랜드 ‘FOOD TEXTILE(푸드 텍스타일)’과 협업한 시리즈 ‘GEL-LYTE III OG(젤-라이트 스리 오지)와 ‘GEL-LYTE V(젤 라이트 파이브)’를 4월 27일부터 아식스 하라주쿠 플래그십, 아식스 오사카 링크스 우메다, 아식스 온라인 스토어, 스니커 셀렉션 등을 순차적으로 발매했다. 사이즈는 235~290, 300mm이며 가격은 1만 5400엔(소비세 포함).

두 모델은 1990년에 발매한 경량 러닝 슈즈 ‘GEL-LYTE III’를 베이스로 한 리프로덕트 모델 ‘GEL-LYTE III OG’와 올해로

탄생 30주년을 맞이하는 ‘GEL-LYTE V’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양쪽 모두 농원에서 구입한 폐기 예정 식재료에서 추출한 색으로 염색한 천을 이퍼에 채용하고 있으며 GEL-LYTE III OG는 루이보스와 감을, GEL-LYTE V는 말차와 양상추를 사용해 각각 두 종류의 색을 조합해 화학 염료로는 낼 수 없는 자연 유래의 소프트한 분위기로 완성되었다. 또 GEL-LYTE V의 미드솔에는 재활용 소재를 20% 이상 사용하고 있다.

FOOD TEXTILE은 도요시마와 색의 원료를 제공하는 식품 관련 기업, 그 패브릭으로 상품을 전개하는 협업 기업 등 3사로 구성된 SDGs 프로

젝트 브랜드다. 지금까지 버려왔던 규격 외 식재료와 커팅 채소의 자투리, 커피 찌꺼기 등을 식품 관련 기업과 농원에서 구매해 식재료에 포함된 성분을 추출해서 염료로 천과 실을 염색해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탄생시켰다.

도요시마에서는 “이번 협업은 업계의 경계를 넘어서 식품 손실 문제에 어프로치하는 FOOD TEXTILE의 노력에 아식스가 공감해 화학 염료로는 낼 수 없는 소프트한 자연 색상에 흥미를 가져 실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출처: Shoes Post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일반 인버터 타입 대비 **4%** 더 에너지 절약가능한 타입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유성열 : 0812 8037 0303 | 한상윤 : 0822 9999 1447 | Mariono : 0812 8763 965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Wolverine Worldwide, 2023년 1Q 수익 기대치 초과해

Wolverine Worldwide가 2023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수익이 예상보다 소폭 증가해 연간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의 액티브 그룹의 고정 환율 매출 성장 15%를 포함해 1분기 결과를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수익 결과는 당초 기대를 소폭 넘어섰으며 현재는 재고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직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과와 현재 시행 중인 이니셔티브로 2023년 한 해 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 브렌던 호프만(Brendan Hoffman) 회장 겸 CEO는 말했다.

1분기 결과

2023 회계연도 1분기에 Wolverine의 매출은 5억 9,94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또한 계속 사업의 매출은 5억8,040만 달러를 달성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머렐의 매출은 1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성장했으며 써코니의 매출은 1억3,260만 달러로 21.2% 상승했다.

반면 스페리의 매출은 13.0% 하락해 6,290만 달러를, 울버린 브랜드의 매출도 12.1% 감소해 5,17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스웨티 베티의 매출도 11.4% 하락해 4,750만 달러를 기록했다.

Wolverine Worldwide의 1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42.5%에서 39.4%로 감소했다. 이는 “2022년 일시적인 공급망 비용으로 인해 재



고 비용이 높아졌고 수명이 다한 재고 청산이 가속화되고 관측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Wolverine의 1분기 순이익은 1,900만 달러이며 주당 순이익은 0.23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전년 동기 순이익은 97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12달러였다.

2023년 전망

Wolverine은 2023 회계연도의 지속 사업 매출이 25억 3,000만 달러에서 25억8,000만 달러를 달성해 전년 대비 0.0~2.0%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1.40~1.7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Worldfootwear

미즈노, 역대 최고 연간 매출 달성해

토털 스포츠 그룹 미즈노가 최근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미즈노는 2023년 3월 31일까지의 12개월 동안 2,120억 엔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같은 실적은 역대 최고치이며 전년 대비 22.8%가 증가한 금액이다.

미즈노는 실적 결과를 산정하면서 달러당 130.78엔의 환율을 사용했으며 이는 일본 환율이 전년보다 16%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결과를 약 160억 달러로 환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에서의 매출은 1,315억 엔으로 전년 대비 15.1% 성장했다. 그리고 미주 대륙에서는 311억 엔의 가치를 달성해 전년 대비 31.5%나 증가했다. 유럽의 경우 251억 엔으로 40.1% 성장했으며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243억 엔을 기록해 43.8% 성장했다.



매출액 중 풋웨어 매출이 637억 엔을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년 대비 34.9% 늘어났다. 의류 부문 매출은 578억 엔으로 15.9%가 성장했고 장비 부문 매출도 552억 엔을 기록하며 20.5% 늘어났다.

개별 스포츠 부문으로 살펴보면 미즈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스포츠 카테고리인 야구, 골프, 러닝이었다.

출처: Footwearbiz

CAMPER에서 맨발에 가까운 감각으로 신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실현한 SGD's 라인 PATH 등장

CAMPER에서 맨발에 가까운 감각으로 신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실현한 SGD's 라인 PATH 등장 캠퍼 재팬이 전개하는 CAMPER(캠퍼)는 2023년 S/S 컬렉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실현한 유니섹스 라인 PATH(패스)를 발매한다.

PATH는 ‘걷기 위한 포장도로’라는 뜻이다. 놀이 감각의 디테일과 얇은 아웃솔이 특징적인 초경량 텍스타일 스니커 라인이다.

인간공학에 의거한 라스트로 발을 확실하게 감싸고 맨발로 걷는 듯한 자연스러운 감각을 재현했다. 적당한 탄력성을 가진 재활용 PET 소재의 패브릭, 발끝과 발뒤꿈치의 러버, 적당한 분당의 슈팅과 발뒤꿈치의 패드, 쿠션성이 좋은 오소라이트(Ortholite) 제 인솔이 매일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포트한다. 재활용 소재만을 사용해 컬렉션 중에서 가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라인 중 하나다. 데뷔를 하는 2023년 S/S시즌



에는 재활용 PET 소재를 사용한 니트 스니커, 패브릭 스니커, 좌우 비대칭 컬러의 트윈즈 스니커 등 3가지 모델을 제안. 가격은 2만 4200엔(소비세 포함), 2만 6400엔(소비세).

출처: Shoes Post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SUNTECH

Making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PRODUCTS



ST-6040HS-C3

3-컬러 컴퓨터 패턴 재봉기



SFT-10616

코딩 자수기



ST-666H(롤러 1본침), ST-777H(롤러 2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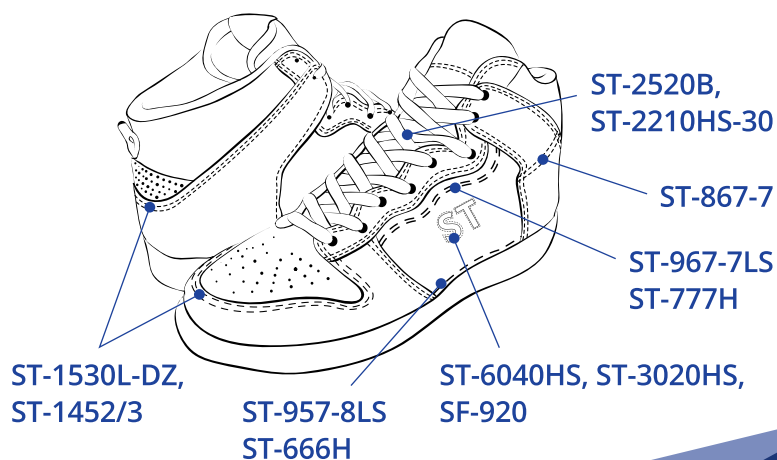
자동 땀폭 조절이 가능한 롤러 포스트 재봉기



ST-168 Series

아리안스 재봉기

APPLICATIONS



CIKARANG OFFICE

Ruko Podium Blok A No. 1 dan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17550
TEL 021-2210-4936 FAX 021-2210-4994
021-2210-4937

JEPARA OFFICE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 006 RW. 001,
Pecangaan Jepara
TEL 0291-752-0288 FAX 0291-752-0588

REMBANG OFFICE

JL. Panglima Sudirman No. 156 6 RT. 002 RW. 03
Kabonganlor, Rembang, Jawa Tengah
TEL 0295-698-3799